

지역 소식통

김제지평선아카데미에 전주대 이재운 교수 초청 강연

김제지평선아카데미에서는 전주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재운 교수를 초청하여 오는 20일 오후 3시 김제시침 지하 대강당에서 '세종을 통해 역사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522회 강연을 진행한다.

이날 강연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왕 중에서도 가장 으뜸인 지도자 세종을 통해 우리 역사의 우수성과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깨우치고 그의 업적을 통해 슬기롭게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이재운 교수는 전주대학교 박물관장을 시작으로 인문과학종합연구소장, 문화관광체육부 확장등을 역임하고 현재는 노동부 지역파트너십 협의체 자문위원,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등에서 특강도 활발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

김제경찰서(서장 박훈기)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신중동 신기마을 회관 및 공덕면 미천마을회관을 방문, 어르신 50여명을 대상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 홍보를 전개하였다.

김제경찰서 관내에서 올해 현재까지 발생한 7명의 사망사고 중 6명(85.7%)이 어르신(65세이상)으로 매년 어르신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국지성 폭우로 인한 운전자 들의 보행자 시인성 약화로 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와 관련 김제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보행자 특히 어르신의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매일 2회 이상 김제소재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무단횡단의 위험성, 야간 보행시 밝은옷 착용의 중요성' 등 어르신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교월동 부녀회, 김치담그기 활동

김제시 교월동 새마을부녀회(회장 이영이)는 지난 17일 부녀회장 자택에서 관내 경로당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할 김치담그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김치담그기 봉사는 무더위로 인해 자칫 입맛을 잃고 기력이 쇠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여름철 별미 열무김치를 담가 관내 경로당과 소외계층에 전달하기 위해 부녀회원 한명 한명이 정성을 모았다.

또한 정성과 구슬땀으로 담긴 열무김치 60여통을 들고 교월동 관내 경로당 37개소와 소외계층 20여 세대를 직접 방문 전달하는 부녀회원들의 얼굴에는 무더위가 무색할 만큼의 기쁨과 보람이 배어 있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지평선축제 프로그램 확정

글로벌·전통·문화·무대 야간·체험 등 5개 분야로 진행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대한민국 최초의 5년 연속 대표축제에 빛나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벚꽃제 일원에서 5개 분야, 5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최종확정됐다.

올해 행사는 5년 연속 대표축제의 마무리와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이라는 대전제를 내걸고 핵심 콘텐츠(Killer contents)강화, 세계인의 참여 유도, 해외 관광객 유치, 지속가능한 축제를 위한 경제적 지원 및 체류형 축제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유성축제로의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및 시내권 프로그램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대기업과 스폰서십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변화를 가져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전체 프로그램은 글로벌, 전통, 문화, 부대 야간, 체험 등 5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글로벌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지평선 쌀을 이용해 세계와 하나 되는 화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가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벚꽃제 일원에서 5개 분야, 55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최종확정됐다.

합의 장을 연출하는 '어메이징 대형 떡 세계 국가 만들기'가 눈길을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19회를 기념하여 세계주요 19개 나라를 선정해 가로 20m, 세로 15m의 떡을 만드는 대형 이슈 메이킹 행사로 내·외국인 1000여명이 참여해 모자이크 형태로 떡을 만들고 깃발 세러머니를 한다.

축제기간 중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내권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문화예술촌 '무지개다리사업' 운영

21일부터 10월까지... 티쳐츠 패션쇼·동화책 만들기 등 프로그램 진행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책공방북아트센터에서 소수 문화계층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1일 시작해 10월까지 진행되며,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팝업북 전문가 도전, 개성을 담은 티쳐츠 패션쇼, 동화작가가 되어 동화책 만들기 등 총 3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팝업북 프로그램에서는 책을 펼쳤을 때 입체적으로 그림 등이 튀어나오는 팝업북의 역사와 예술적 배경적 지식을 배우고, 나만의 팝업북을 제작해본다. 티쳐츠는 책 속에 나오는 다양한 의상들을 응용해 만들고, 미니 런웨이 행사도 진행한다. 동화책 만들기는 책 전 문과 함께 나만의 동화책을 만들어보고 서로 읽어보며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사업은 우리 사회 내 다양한 소수 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교육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삼례책공방이 주관하고 전라북도관광재단에서 주최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재료가 지원되며, 회당 정원은 선착순 40명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책공방북아트센터에서 소수 문화계층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완주군, 여름 휴가철

완주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증가에 대비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

18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를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터미널 및 공영주차장 시설점검과 주, 정차 지도단속에 나선다.

또한 이 기간 중 특별교통대책반을 편성해 문제 발생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긴급 조치를 취해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터미널, 철도역 등 휴가철 방문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비상구 개방여부, 운영

시간표 부착, 냉방시설 가동 상태 등을 점검해 피서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여객운송조합 및 사업체의 안전운행을 위한 점검, 정비, 교육을 독려해 휴가철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편의시설의 청결상태도 점검해 서비스만족도를 제고한다.

강신영 건설교통과장은 "이서지역 간선노선(남부시장 경유) 신설과 관련하여 이용객 증가가 예상된다"며 "완주군을 찾는 피서객들이 편안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시설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원활한 주정차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잘못된 인사 절차·규정 바로 잡아야”

김북남 김제시의원 5분 발언서 주장

김제시의회(의장 나병문)는 18일 제210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에 돌입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18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한 후 19일부터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진행되며, 2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북남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7일 단행된 김제시 하반기 정기인사의 불합리성을 질타했다.

이날 김북남 의원은 김제시의 이번 인사발령의 문제점으로 직렬의 특성을 배제한 비전문가의 자리배치, 전보제하자의 인사이동과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점을 지적하며 그 동안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김제시 인사와

조직개편에 상당한 유감을 표하며 인사절차 등 의회가 남독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김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의원은 "인사가 시장의 고유 권한 일지라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한 채 이루어진 잘못된 인사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히 일하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며 이견식 시장이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그 동안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 열정을 쏟아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이날 김제시의회는 원칙과 절차, 특히, 의회의 권한까지도 무시하며 단행한 정기인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제시의 의견을 듣고자 긴급 임시의원 간담회를 소집하고 다시 이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김제시에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진행

완주군이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진행했다.

18일 완주군은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2017 성인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에서는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 강사 2명을 초빙해 '성 주류화 정책 및 성인지예산제도'의 이해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성인지 관점의 정책적 의미와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소개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성별영향분

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연계방안 등의 내용으로 실무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요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을 기준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평가해 궁극적으로는 군정활동이 양성평등을 실현해 나가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완주군은 지난해 98개의 조례와 39개의 사업 등 총 140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별기에 출신 지명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